금주의 법구–〈건의경〉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5월 7일)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며 불교계 대표적인 종합 공연예술 행사인 영산재(靈山齋) 시연회가 현충일인 6월 6일 서울 신촌의 태고종 봉원사서 봉행됐다. 33회째를 맞은 올해 영산재는 '세계인류평화와 코로나19 종식' 을 위한 행사로 열렸다. 영산재보존회장 원허 스님(봉원사 주지)은 "오늘 시연되는 영산재는 국민 대통합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소중한 기원을 담고 있다"며 "산사에 울려 퍼지는 부처님을 향한 범패 소리를 통해 대승보살도를 얻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담아가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청각장애인에겐 애국가도 '찬송가'

한국표준수화 '애국가' 종교편향 논란

'하느님이 보우하사' 구절서
기독교 유일신으로 통역 돼
의미 표현할 대체어 부재해

표준수화 이전 1900년대엔
'하늘'+'님' 으로 수화 표현
"의도적 왜곡" 의혹 제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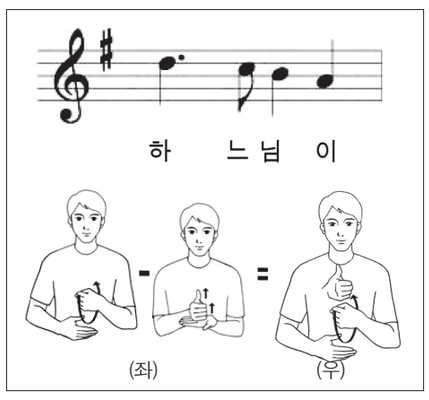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 국가인 '애국가' 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기독교 찬송가' 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국가를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수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종교적 의미를 담은 수화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애국가 1절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구절이다.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립한 '수화로 하는 애국가' 에 따르면, 해당 구절의 '하느님' 은 기독교 유일신인 '하나님(야훼)' 을 뜻하는 수화로 표현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국표준수화를 기준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발간한 한국수화사전에 '하느님' 과 관련한 수화단어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다. '기독교에서 믿는 유일신(야훼)' 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 과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의 의미를 지닌 '하느님' 이다. 이 중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우하사' 는 문맥상 '하늘(天)' 을 어원으로 한 보통명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해당 구절은 '하느님' 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현재 표준수화에서 두 단어는 모두 기독교적 의미의 '하나님' 으로 동일하게 표현된다. 이는 기독교수화사전의 '하나님(유일신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이며 인격적인 존재)' 수화 표현과도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은 애국가 공식통역에서 자연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애국가의 표준수화가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을 종교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교편향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의 '수화로 하는 애국가' 에 게재된 '하느님' 의 수화표현(좌)과 한국수화사전 · 기독교수화사전의 '하나님' 수화 표현(우)이 동일하다.

불자 청각장애인 하영준 씨는 "일반인들이 보면 단어 하나의 오류일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이를 통해 애국가 자체를 종교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조계종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회장 김철환)는 최근 논평을 통해 종교편향적 수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환 원심회장은 "보통명사로서 '하느님' 을 표현할 수 있는 수화단어가 추가로 정립돼야 한다"며 "한국수화사전 개정판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이라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애국가의 수화 통역이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표준수화가 제정되기 전 1900년 후반, 농아학교에서는 애국가의 '하느님' 을 '하늘' 과 '님' 을 뜻하는 수화를 조합한 표현으로 교육했다는 것이다. 당시 농아학교 등에서 수화를 배운 청각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애국가의 수화통역을 '하늘+님' 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작 표준수화에서는 기독교적 하나님으로 정립된 셈이다.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불교수화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한휘 씨는 "나 역시 과거 농아학교에서 애국가를 배울 때 '하늘+님' 의 표현으로 수화를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적지 않다"며 "표준수화 제정 이후 오히려 청각장애인에게 종교편향적인 요소가 발생한 것은, 당시 표준수화 제정 추진위원회에 기독교계 인사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림사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은 "과거 왜곡되거나 비하의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불교수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데 공력을 쏟다보니 다른 종교의 수화가 공적영역에서 잘못 사용되는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례 상월선원 7월 첫 삽 뜬다

원명 스님 9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한국불교 도심 속 포교와 선풍 진작의 터전이 될 위례 상월선원 착공식이 7월 초 열린다. 공기는 1년으로 상량 시기는 가을로 예상된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6월 9일 봉은사 다래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월선원 착공 소식과 지난 5월 발족한 제1기 수미산원정대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원명 스님은 "상월선원은 불교 중흥의 핵심"이라며 "상월선원은 수행 정신이 전해지는 곳으로 향후 비구 스님 선원, 재가 선원 등을 구성해 선종불교 참선을 하는 수행선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월선원 불사에는 난관이 많았다. 종교부지 불하 이후 불사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여론 등이 거셌다. 스님은 "상월선원은 결국 지역이 발판이 돼 불자조직들이 지역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방면으로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포교하면서 불사를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전했다.

착공식 후에는 대웅전과 요사채 불사가 1차로 진행되며, 2차와 3차 불사는 종단과의 협의를 통해 차후 진행된다. 대웅전 뒤편 원미륵대불은 상월결사 상징으로 보존된다.

1차 대웅전, 요사채 건립
향후 문화공간 확충 계획

1차 불사소요액은 약 52억 원으로 봉은사는 상월선원 불사를 위한 모연도 착공 후 진행할 예정이다.원명 스님은 "상월선원이 들어서면 봉은사 국악합주단 공연 등 문화공간으로 전통문화를 알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상월선원은 외형적인 불사와 함께, 내부적인 불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원명 스님은 최근 1기 교육을 입재한 수미산원정대가 상월선원의 주축이 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그동안 포교 최전선임에도 불구하고, 포교는 등한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수미산원정대를 이끌면서 이제 조금 포교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스님들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포교 전진기지로서 힘을 모으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단지 혼자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자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교육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수행 등 다양한 것을 통해서 불교를 알아가게 될 것"이라며 "상월선원과 봉은사를 중심으로 수미산원정대 활동을 통해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포교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위례 상월선원 조감도.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대한불교조계종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www.buddhism.or.kr